

**✦ 우리들의 정성 【2월 13일(월) ~ 2월 19일(주일)】**

연중 제 7주일 주일헌금		3,368,600원		특별헌금		2,443,5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761명		
교무금 3,850,000원	고건영 마리아	공길자 스테파니아	곽재수 미카엘	권재석 니콜라오	김금순 루치아	김보성 대건안드레아	김수환 스테파노	김연옥 데레사	김일수 베드로	김지연 세실리아	박순복 안나	박순임 페트라
	박정옥 소피아	박종백 바오로	박종성 미카엘	방성호 프란치스코	배동춘 대건안드레아	배지원 베로니카	성효경 세실리아	소준바오로	손순남 모니카	손영진 베드로	양현정 마리아	양훈현 미카엘
	오경아 카타리나	원주현 헬레나	유리숙 빅토리아	윤일상 프란치스코	윤정자 베로니카	이강수 프란치스코	이규정 데레사	이명은 아가페	이순애 마리아	이정란 루치아	이태경 아킬레오	임현교 그레고리오
	정미경 글라라	최순종 가타리나	최영희 카타리나	최정연 요안나	하순자 엘리사벳	허경범 마리노	홍순주 안젤라					
	감사헌금	김시정 그라시아 100,000	김옥희 스테파니아 50,000	윤정자 베로니카 100,000	성소후원금	익명 10,000	손순남 모니카 20,000	방성호 프란치스코 50,000	토지·건축 헌금	공길자 스테파니아 100,000	권재석 니콜라오 50,000	배서영 10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00,000,000원	250,000원	12,195,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 I 미사전례》)**

◆ 세례 받지 않은 예비 신자가 모르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일 세례 받지 않은 예비 신자가 성체를 모시려 한다면, 또는 모르고 성체를 영했을 경우에는 미사를 마친 다음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체를 모시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성체가 단순한 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밀떡의 형상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을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아멘.’ 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공복재와 몸가짐 등의 준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성체를 모시기 전·후의 마음가짐, 성체에 대한 공경은 오직 세례 받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설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영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성체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일 경우 성체를 모시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성체를 요청한다면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 성직자들은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자진하여 성사를 청하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1항 참조).

————아래는 간추린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성체가 단순한 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후의 마음가짐, 성체에 대한 공경은 오직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설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영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성체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일 경우 성체를 모시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성체를 요청한다면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 성직자들은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자진하여 성사를 청하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1항 참조).